

전주서 만나는 제주 4·3사건 진실과 기억

다큐멘터리 영화 '목소리들' 26일 관객 시사회 개최

제주 4·3사건의 참상과 생존자들의 감동적인 이야기를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목소리들'이 오는 26일 오후 7시 30분 전주 CGV 전주교사 5관에서 관객이 여는 시사회로 상영된다.

이에 따르면 이 영화는 지난해 전주국제영화제에서 다큐멘터리상과 EIDF 2024 심사위원 특별 언급 및 관객상을 수상한 작품으로, 김은순(1934년 생/표선면 토산리 달빛 사건의 유일한 생존자) 할머니의 짐목을 추적해 가며 4·3 사건의 진실 그리고 4·3을 겪은 여성들의 처절한 기억들을 생생하고 진솔하게 전달할 예정이다.

1948년 봄, 마을의 젊은 여자들이 한꺼번에 끌려가 며칠 후 모두 사살됐다. 그때 단 한 소녀만이 살아 돌아왔다. 유일한 생존자이자 목격자인 그녀는 그곳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한 평생 입을 열지 않았다. 누군가 물으면 대답 대신 발작을 일으켰다. 제주 4·3 당시 희생된 수많은 어린 여성들과 끔찍한 기억을 안고 살아남은 여성들. 70여 년, 어둠 속에 봉인됐던 목소리가 비로소 풀려 이 작품에 담겼다.

특히 여성을 통해 제주 4·3을 조명하는 첫 번째 영화를 전주에서 다시 만날 수 있는 것은



목소리들 포스터

민국을 살고 있는 우리 모두의 일기기에 '4·3 기억영화제 추진위원회'가 전국 각 지역에서 극장을 열어 스스로 기억의 역사를 만들어 가겠다는 의지로 마련된 것이다.

이 일환으로 추진위원회는 기존 영화 방식과 달리 배급을 극장에 의존하기보다는 관객이 직접 상영회를 열고 확산시키는 참여 형 배급 전략인 '100개의 극장 프로젝트'를 통해 이 영화의 관객 추진단을 모집하고 있다.

현재 '오마이씨네 홈페이지(<https://ohmycine.com>)에서 100석 한정으로 전주 시사회 관람권이 판매되고 있다.

한편 상영회에서는 이 영화를 연출한 지혜원 감독과 김옥영 프로듀서가 참여하고, KBS 전주방송총국 한주연 기자가 모더레이터로 참여해 관객과 영화 속 담긴 제주 4·3사건에 대한 다양한 담론을 나눈다.

이번 시사회를 준비한 전북환경운동연합 진경은 운영위원은 "변역의 땅, 전주에서 제주 4·3을 기억하고, 그날의 아픔을 관객과 함께 나누는 기회를 위해 관객이 직접 만드는 상영회를 마련했다"며 "이 영화가 제주 4·3사건에 대한 깊은 이해와 함께, 우리 사회에 필요한 화해와 치유의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정읍시립미술관, 출향작가 기획전 개막

4월 20일까지 정읍 출신 14명 작가 작품 등 전시

정읍시립미술관이 출향작가 기획전 '집으로 가는 길, 귀로 II'를 개최해 정읍을 떠나 활동하는 예술가들의 작품을 시민들에게 선보인다.

이번 전시는 2022년 첫 번째 출향작가 기획전 이어 두 번째로 마련된 자리로 1951~1980년 출생 출향작가들과 정읍을 기반으로 활동한 작가들의 작품을 통해 정읍 예술의 흐름을 조명한다.

이번 전시는 3개의 전시실로 구성됐다. 1전시실에서는 전통 회화와 현대미술을 통해 인물을 표현한 작품들이 전시되며, 2전시실에서는 정읍의 풍경을 포함한 자연과 공간을 담은 작품들이 공개된다. 3전시실에서는 전북도립미술

관과 협력해 도립미술관이 소장한 출향작가들의 작품을 선보이며, '찾아가는 미술관'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도·시군 공립미술관 협력 전시도 함께 운영된다.

또한, 관람객들이 직접 예술을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마련됐다. 2층 라운지에서는 미디어 드로잉 체험 '소원풍등(Wish Lantern)'과 연계한 투명 컬러링 체험 '내가 살던 고향'을 통해 방문객들이 보다 친숙하게 예술을 경험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전시에서는 정읍 출신 14명의 작가들이 선보이는 평면·입체 작품 68점과 도립미술관이 소장한 9명의 작가 작품 13점을 만나볼 수



있다. 이를 통해 출향작가들의 다양한 예술적 시도와 작품 세계를 폭넓게 감상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전망이다.

전시는 4월 20일까지 진행되며 관람시간은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오후 5시 30분 입장 마감) 운영된다. 매주 월요일은 휴관이며 전시·체험 프로그램은 모두 무료로 제공된다. 자세한 사항은 정읍시립미술관(063-539-5178)으로 문의하면 된다.

/정은=김대환 기자

전북여성가족재단, 가족친화인증 컨설팅 통한 전북형 워라밸 기업 발굴

전북여성가족재단(전정희 원장)은 가족친화인증 기업 발굴을 통한 일·생활균형 문화 확산의 선도적 역할을 본격 수행하기로 했다.

가족친화인증이란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 및 공공기관에 대해 심사를 통해 여성가족부장관 명의의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로, 올해 전북특별자치도는 도내 출연기관

중 가족친화 미인증 기관(11개 기관)을 포함한 총 56개소 기업(관) 컨설팅에 집중해 전북형 워라밸 기업을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20일 재단에 따르면 6월 말까지 가족친화인증 준비컨설팅 참여기업을 모집, 신규 인증 기업(관) 발굴 및 기존 인증 기업(관) 유지(연장·재인증)에 힘쓰기로 했다. 또한 일대일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인증받은 기업에 가족친화 문화가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다.

가족친화인증 컨설팅은 △가족친화인증 적격 검증 △법적 요구충족 사항 확인 △가족친화인증 지표 검토 및 구비서류 작성 안내 등이다.

전정희 원장은 "가족친화적 기업문화 조성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가족친화인증(관) 인증 컨설팅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전북형 워라밸 기업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기자

'전주예술지원 통합공모' 시작

전주문화재단, 창작활동 활성화 위해 4개 분야 진행

(재)전주문화재단이 '2025 전주예술지원 통합공모'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이번 통합공모는 공연예술지원, 전주신진예술가지원, 오디오북 제작지원, 시각예술 국내교류지원 등 4개 분야로 나눠 진행된다.

먼저, 공연예술지원은 전주를 연고로 활동하는 공연예술단체를 대상으로 '창작초연'과 '우수 레퍼토리' 두 개 유형으로 나눠 추진한다. '창작초연'은 미발표된 창작 초연 작품 가운데 1건을 선정해 2천만 원 정액 지원한다. 기존에 발표했거나, 기발표된 작품을 수정·보완해 재발표하는 '우수 레퍼토리'는 3천2백만 원 예산 범위 내에서 최대 4개 단체를 선정할 계획이다.

올해는 장애예술단체의 공모 선정 시 전주한벽문화관의 '공연활성 무대지원사업'과 연계해 공연장 및 무대 인력을 지원하는 방식 등을 도입해 모든 예술인이 문턱 없이 예술 하기 좋은 도시로 만들어 나간다는 방침이다.

다원예술 등 예술 전 분야의 미발표된 창작품과 실현되지 않은 예술 프로젝트를 공모한다. 예술계 데뷔 경험이 없는 만 19세~만 30세 대상의 '처음발표' 유형과 예술계 데뷔 이후 작품 발표를 준비 중인 만 19세~만 39세 대상의 '디딤발표' 유형 등 2개 부문으로 나눠 진행한다.

선정자는 최대 8인으로, 총 3천6백만 원 규모의 시상금 형태 무정산 지원금과 함께 전문가 일대일 컨설팅, 영상 아카이빙, 실연 사진 촬영 등을 지원한다.

오디오북 제작지원은 전주 연고 작가의



미발간 문학작품을 대상으로 전자책과 오디오북의 제작부터 유통, 마케팅, 정산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한다. 시, 시조, 동시, 동화, 소설, 수필, 희곡 등 평론을 제외한 모든 장르의 작품 응모가 가능하다.

올해는 오디오북 제작과 더불어 전자책 제작을 지원하며, 작품 발표 시제비(70만 원)도 새롭게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공연예술지원과 전주신진예술가지원의 접수 기간은 3월 4일~12일까지며, 오디오북 제작지원의 접수는 4월 1일~9일까지 전자우편(jcf_run@naver.com)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전주문화재단 누리집(<http://www.jcf.or.kr>)을 참고하거나 전주문화재단 문예진흥팀(063-211-9277, 063-211-9270)으로 문의하면 된다.

/장은성 기자

정읍시립박물관, 운영자문위원 위촉식·자문회의 개최

정읍시립박물관은 지난 19일 운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새로운 운영자문위원을 위촉식과 자문회의를 개최했다.

운영(유물평가)자문위원회의 박물관 운영과 유물평가 등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을 제공하는 기구로, 총 10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이번 위촉식에서는 임기가 만료된 기존 9명의 위원 중 5명을 신규 위촉했다.

새롭게 합류한 위원은 김승범 시의원, 국립중앙박물관 민길홍, 국립광주박물관 박진일, 전북대학교박물관 이종철, 원광대학교 유미나 교수 등이다. 또한, 김재영 정읍역사문화연구소 이사장이 위원장으로 선출되며 새로운 임원진이 구성됐다.

위촉식 후 열린 자문회의에서는 올해 주요 운영 계획이 보고됐고, 올해 박물관 운영 계획에는 △국보순회전 <모두의 곁으로> △석지 채



용신 테마전 등 다양한 전시 사업과 함께 △어린이 국기유산 발굴 체험장 운영 △소장품 구입 등의 교육·체험 프로그램이 포함됐다. 이에 대해 위원들은 세부적인 질의와 자문을 이어가며 박물관 운영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후 수 시장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지역 문화유산을 적극 발굴하고, 시민들이 더욱 다양한 역사·문화를 접할 수 있도록 박물관 운영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은=김대환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옛 전북의 구심점

전라감영

전라감영은 전라감사가 근무하는 관이라는 뜻으로, '완영'이라고도 불렀다. 완영이란 전주의 옛 지명 '완산'에서 나온 말이다.

조선시대 전라도는 지금의 전라남·북도와 제주도까지 포함한 지역으로, 이 모두를 총괄한 지방통치기관 전라감영은 조선왕조 500여년 내내 전주에 자리했다.

일제강점기에 들어와 전라감영 자리에 전북도청이 들어섰고, 2005년까지 전북 도청의 중심이 되었다.

전북도청은 행정만이 아니라 전북의 역사와 문화를 끌어온 전북의 구심점이자 견인차였다.

전주매일 캠페인

선화당

전라감영 복원 논의는 2005년 전북도청이 신시가지로 이전하면서 본격화돼, 2009년 전라감영 복원추진위원회가 구성됐고, 2014년 전라감영 복원 재창조위원회가 결성됐다. 복원을 앞두고 10여년간 계속된 지반하강 논의의 핵심은 복원의 범위와 옛 전북도청의 근대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 문제였다.

복원 범위는 전체복원, 부분복원, 상징복원으로 나뉘었고, 옛 전북도청의 가치는 김영태의 중추적 역사에서 어느 역사를 택하느냐 하는 문제였다.

결국 감영의 중심건물인 감사의 집무처인 선화당을 비롯한 전라감사 영역을 복원하는 것으로 결정돼 2015년 마침내 옛 전북도청을 철거하고 2020년 동편 부지에 감영 건물을 복원했다.

(출: 전주시 제공)

관풍각

내아